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분석*

이 승 아
(이화여대)

1. 서론

최근 조의연(2012)은 국내 번역전략 연구의 동향을 개관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번역전략 연구들(진실로 2010, 곽은주·진실로 2011, 김도훈 2011 등)은 주로 원천 언어(source language)와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의 언어적 차이를 천착하였기에 “번역전략으로 제시되는 변환규칙들은 원천텍스트의 해당 텍스트 언어요소가 목표텍스트의 규범에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조의연 2012: 278).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번역전략은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조의연 2012: 268).

본고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에 대해 견해를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밝히는 것이 아니다. 번역전략 연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배타적이 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를 번역전략 연구에 활용할 경우 번역오류를 줄이면서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번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을 예로 들어 실용적인 번역전략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영어의 시제(tense)와 상(aspect)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래 문장을 접했다고 가정해 보자.

(1) “You’re being rather rude, you know,” said Luna serenely.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735)

번역과정에서 어휘로 인한 번역상의 어려움은 부사 *serenely*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1)에서 밑줄 친 부분을 번역함에 있어서 “단어 차원의 등가(equivalence at word level)”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Baker 2011: 9). 번역과정에서 난제는 바로 (1)의 *be being rude*를 어떻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천텍스트 상에 나타나는 영어의 현재진행형을 ‘무례하고 있다’라고 그대로 직역할 경우 목표텍스트의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 간의 이 같은 문법적 불일치(grammatical mismatch)를 해결하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목표 언어의 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be being rude*를 ‘무례하다’라고 번역할 경우 “문법 차원의 등가(grammatical equivalence)”가 성립하는가?(Baker 2011: 92)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효과적인 영한번역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2. ‘*Be being* + 서술 형용사/명사’ 구문의 특징

현대 표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상태 동사(state verb)는 진행형 구문에 쓰이지 못한다(Vendler 1957 등). *Be*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데, 다음 (2)-(4)에서

(b)의 예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약조건 때문이다.¹⁾

(2) a. The flag is red.
b. *The flag is being red.
(Huddleston 2002: 119)

(3) a. The Earth is round/flat.
b. *The Earth is being round/flat.
(Huddleston 2002: 167)

(4) a. He is ill with bronchitis.
b. *He is being ill with bronchitis.
(Huddleston 2002: 169)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경우에도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고 있’은 ‘걷다’와 같은 비상태성 용언에 붙어 동작의 진행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은 ‘젊다’, ‘지루하다’와 같이 상태성 용언과는 결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행상이란 ‘동작’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서정수 1996: 138).

(5) a. 저 사람은 지금 걷고 있다.
b. *저 사람은 지금 젊고 있다.
(서정수 1996: 138)

(6) *미나는 지루하고 있다. (Lee 2010: 802)

그런데 영어에서 *be* 동사가 진행형 구문에 쓰이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다음 (7)의 예를 살펴보자.

(7) a. He is tactful.
b. He is being tactful.
(Huddleston 2002: 167)

(7a)는 개인의 성품을 나타낸다. 반면에 (7b)는 그 사람의 현재 태도나 행동을

1) 2장의 일부 논의(인용 예문 포함)는 Lee(2004)의 3.3절을 참고하였다.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위자성(agentivity)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7b)는 ‘그는 재치 있게 행동하고 있다(He is behaving tactfully)’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8a)는 ‘그녀는 천성이 착하다(She is constitutionally good-natured)’라는 뜻인 반면, (8b)는 ‘그녀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굴고 있다(She is acting kindly towards someone)’라는 뜻이다.

- (8) a. She is kind.
b. She is being kind.

(Leech 1987: 29)

(7b)와 (8b)는 *be being* 다음에 서술 형용사(predicative adjective)가 사용된 구문인데, *be being* 다음에 서술 명사(predicative noun)가 오는 경우에도 현재 태도나 행동을 표현한다. 쉐퍼(Scheffer 1975: 100)에 의하면, (9a)는 ‘그 소년은 경찰관 놀이를 한다(That boy plays the part of a policeman)’로 해석될 수 있고,²⁾ (9b)는 ‘그녀는 당당한 숙녀 같은 인상을 주기를 원한다(She wants to make that impression)’를 의미한다.

- (9) a. He's being a policeman.
b. She's being a grand lady.

(Scheffer 1975: 100)

이처럼 ‘*be being* + 서술 형용사/명사’ 구문은 주어의 태도나 행동이 일상적이지 않고 “표준에서 벗어남(a change from the norm)”을 나타낸다(Cowan 2008: 363). (10a)와 같이 현재형 시제가 사용된 문장은 ‘네 성격이 매우 고집스러워 아무도 너와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현재진행형 구문인 (10b)는 ‘너 지금 매우 고집스럽게 구는구나.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 무슨 일 있니?’를 함축한다.

- (10) a. You're very stubborn!
(Implication: No one can get along with you.)

2) 익명의 논평가가 지적하듯이, (9a)는 맥락에 따라 경찰관인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b. You’re being very stubborn!

(Implication: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usually behave this way.)

(Cowan 2008: 363)

‘Be being + 서술 형용사/명사’ 구문이 일시적 행동(temporary behavior)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 구문이 *today*, *this morning* 등과 같은 시간 부사(time adverb)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11) 영구적 속성(Permanent Quality)

a. Claire *is* a very sociable person.

b. That man *is* an idiot.

(Eastwood 2006: 14)

(12) 일시적 행동(Temporary Behavior)

a. Andrew *is being* very sociable today.

b. You *are being* an idiot this morning. (= ‘You are behaving like an idiot.’)

(Eastwood 2006: 14)

또한 다음의 예는 ‘be being + 서술 형용사/명사’ 구문이 인간 행위성(human agenc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a. John *is* noisy.

존이 시끄럽다.

b. John *is being* noisy.

존이 시끄럽게 굴고 있다.

c. The river *is* noisy.

강이 시끄럽다.

d. *The river *is being* noisy.

강이 시끄럽게 굴고 있다.

(Partee 1977: 306)

파티(Partee 1977: 306)가 지적하듯이, (13d)는 의인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

b. Today, my uncle is being Napoleon. (could be said of an actor or a megalomaniac)

(Leech 1987: 30)

3. 연구방법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 분석 코퍼스로 택한 것은 조앤 K. 롤링(J. K. Rowling)이 쓴 해리포터 소설 시리즈이다. 총 7권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영어 원본은 Arthur A. Levine Books에서 출판한 것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문학수첩에서 발간한 것이다.⁴⁾ 즉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을 토대로 영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예들을 수작업으로 찾았다.

해리포터 소설 시리즈를 분석 코퍼스로 선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비교적 풍부한 대화체를 담고 있고,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으며, 원작의 대중적 인기로 인해 번역본도 주목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⁵⁾ 또한 총 7권으로 이루어진 해리 포터 시리즈의 한국어 번역본을 두 명의 번역가가 번역하였으므로 시리즈 전체를 동일인이 번역하였을 때 야기되는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오역이 발견되었을 때 번역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십상이나, 전자의 경우 오역이 원천 언어 자체의 난해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은 해리 포터 소설 시리즈를 통틀어서 총 36회 나온다.⁶⁾ ‘Be being + 서술 명사’ 구문은 단 하나만 발

4) 자세한 서지 사항은 논문의 뒷부분에 수록하였다.

5) 해리 포터 번역본을 다룬 연구로는 저자 롤링이 직접 만든 단어들이나 문화적 특수성이 담긴 용어 등 어휘 번역에 대한 것(Davies 2003, Valero Garcés 2003), 대명사 *you*가 존칭-비존칭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는 불어, 스페인어, 독어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연구(Jentsch 2002), 소설 속 여성 등장인물들의 화법에 대한 연구(Wood 2009) 등이 있다.

6) 36개의 예문 이외에 다음 (i)-(ii)도 발견되었으나, (i)의 경우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이 합성어의 일부로 사용되어 제외시켰고, (ii)의 경우는 *born*이 과거분사형

견되어서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표 1> 해리 포터 소설에 포함된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 (단위: 토큰)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합계
3	3	1	8	7	7	7	36

36개의 예문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예문 분류

	잘된 번역	대안적 번역	합계
토큰	22	14	36
비율	61.1%	38.9%	100%

<표 2>에서 잘된 번역이란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의미를 살린 번역을 뜻하고, 대안적 번역은 번역가의 개입(translator's intervention)이 이루어진 번역을 뜻한다. 잘 된 번역과 대안적 번역의 예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이러서 제외시켰다.

(i) "Ron," said Hermione, in an I-don't-think-you're-being-very-sensitive sort of voice,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150)

(ii) "when two Neptunes appear in the sky, it is a sure sign that a midget in glasses is being born, Harry. . . ."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201)

7) 분석 코퍼스에서 찾은 'be being + 서술 명사' 구문은 다음과 같다.

(i) "I'm not being 'Rodent', no way, I told you I wanted to be 'Rapier'!"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 442)

4.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번역전략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번역전략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4.1절에서는 이 구문의 의미를 살린 번역을 살펴보고, 4.2절에서는 번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 대안적 번역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4.1.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의미를 살린 번역

원천텍스트(source text, ST)의 의미를 목표텍스트(target text, TT)에서 비교적 충실히 살린 실례를 모아 번역전략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

분류	예시	토큰	비율
ST와 TT에서 고의성 부사어('deliberately, on purpose') 사용	4.1.1절	2	9.1%
ST와 TT에서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at the moment') 사용	4.1.2절	1	4.5%
TT에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그 때') 첨가	4.1.3절	1	4.5%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짓') 첨가	4.1.4절	3	13.6%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행동하다, 굴다, 대하다') 첨가	4.1.5절	5	22.7%
ST의 'be + 서술 형용사'를 TT에서 동작 동사로 대체	4.1.6절	8	36.4%
TT에 비유표현('마치, 처럼') 첨가	4.1.7절	2	9.1%
합계		22	99.9%

<표 3>에서 보듯이, 번역전략 중 첨가(addition)와 대체(substitution)가 주로 사용되었다. <표 3>에 나오는 일곱 가지 부류와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는 4.1.1절~4.1.7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4.1.1. ST와 TT에서 고의성 부사어 사용

앞서 2장에서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이 고의성을 나타내는 부사어인 *deliberately*, *on purpose*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18)-(19)에서 보듯이, ST에 이러한 고의성 부사어가 있을 경우 TT에서 이 부사어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행위자성을 잘 살릴 수 있게 된다.

(18) ST: The guard had never heard of Hogwarts and when Harry couldn't even tell him what part of the country it was in, he started to get annoyed, as though Harry was being stupid on purpose.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p. 131)

TT: 그 역무원은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고, 해리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말하지 못하자, 그는 해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1권 I, p. 134)

(19) ST: “You are being deliberately unhelpful! I expected better, Lucius Malfoy always speaks most highly of you!”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745)

TT: “당신은 일부러 날 돕지 않았어! 루시우스 말포이가 항상 당신 칭찬을 했기 때문에 난 좀더 많은 걸 기대했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V, p. 82)

4.1.2. ST와 TT에서 시간 부사어 사용

2장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은 일시적 행동을 표현하며 따라서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20)의 경우 ST에 *at the moment*라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었고, 이를 TT에서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이 구문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

(20) ST: “The Ministry’s being very anti-werewolf at the moment and we thought our presence might not do you any favors.”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 139)

TT: “마법부는 현재 매우 반 늑대인간적인 입장이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네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거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제7권 I, p. 226)

4.1.3. TT에 시간 부사어 첨가

이 절에서 살펴볼 번역전략은 ST에는 시간 부사어가 없는데, TT에 시간 부사어를 첨가하여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일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21)을 보면 TT에 ‘그때’라는 표현이 첨가되었다.

(21) ST: “Well, you were being really obvious, he realized what you were up to within about five seconds,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p. 255)

TT: “그때 넌 속이 빠히 들여다보였어. 보진 씨는 5초도 안 돼서 네가 왜 거기 왔었는지 알아차렸을 거야.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제6권 II, p. 144)

4.1.4.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첨가

다음으로 살펴볼 번역전략은 TT에 ‘짓’과 같은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를 첨가하여 이 구문의 행위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2) ST: “Malfoy was being absolutely foul to a first-year back there.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197)

TT: “말포이가 저기 뒤에 있는 1학년 학생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II, pp. 41-42)

(22)에서 *be being foul*을 ‘못된 짓을 하다’로 번역했듯이, *be being stupid*를 ‘멍청한 짓 하다’, *be being thick*을 ‘바보짓을 하다’로 각각 번역할 수 있다.

4.1.5.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첨가

한편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행위자성을 표현하기 위해 TT에 ‘행동하다’, ‘굴다’, ‘대하다’ 등과 같은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첨가하는 번역전략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23) ST: Gryffindor Tower was hardly less crowded now than during term-time; it seemed to have shrunk slightly too, as its inhabitants were being so much rowdier than usual.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403)

TT: 그리핀도르 탑은 휴가가 시작되기 전만큼이나 수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심지어 그리핀도르 탑이 약간 비좁아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것은 기숙사의 학생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야단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4권 III, p. 41)

(24) ST: “Why’s he being so stupid?”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93)

TT: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구는 거죠?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I, p. 160)

(25) ST: They were being quite friendly to each other, though oddly formal.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433)

TT: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예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꽤 다정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4권 III, p. 91)

4.1.6. 동작 동사로 대체

코퍼스 분석 결과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으로 가장 많이(36.4%) 사용된 것은 ST의 ‘*be* + 서술 형용사’를 TT에서 동작 동사로 대

체하는 것이다. (26)의 경우 *be rude*를 '무례한 말들을 많이 하다'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다.

(26) ST: Smith was being quite rude about Gryffindor,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p. 413)

TT: 스미스 선수는 그리핀도르 팀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한 말들을 많이 했었지요.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제6권 III, p. 116)

(27)에서 *nosy*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꼬치꼬치 캐묻는'이라는 뜻인데, 이를 TT에서 '쓸데없이 참견을 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였다.

(27) ST: "Never you mind," she said as though she thought he was being nosy.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436)

TT: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해리가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통명스럽게 딱 잘라 말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4권 III, p. 95)

다음 (28)-(29)도 동작 동사로 바꿔서 번역한 경우이다.

(28) ST: Bagman seemed to know he wasn't being honest.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447)

TT: 하지만 루도 베그만은 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4권 III, p. 112)

(29) ST: "I suggest, Headmaster, that Potter is not being entirely truthful," he said.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p. 144)

TT: "교장 선생님, 포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가 말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제2권 I, p. 202)

4.1.7. TT에 비유표현 첨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번역전략은 동작 동사로 대체하는 것은 4.1.6절에서 다

룬 것과 같지만 이에 더해 TT에 ‘마치’, ‘처럼’과 같은 비유표현을 첨가하여 ‘시늉을 하다, 체하다’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는 것이다. (30)에서 *infuriating*은 ‘정말 짜증나는’, ‘정말 화나는’의 뜻인데, 이를 TT에서 ‘약을 올리다’라는 동사로 대체하였고 덧붙여 ‘마치’라는 비유표현을 첨가하였다.

(30) ST: Harry had no idea what this meant; Dumbledore was being infuriating.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 712)

TT: 해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덤블도어는 마치 약을 올리려는 것 같았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제7권 IV, p. 233)

(31)의 경우 ST의 *stupid*를 TT에서 ‘바보처럼’으로 번역하였으며, 앞 문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깜짝 놀라다’라는 동사로 마무리했다.

(31) ST: Harry shook himself mentally; he was being stupid.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p. 19)

TT: 해리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바보처럼 깜짝 놀라다니…….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제4권 I, p. 38)

이 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에 요약되어 있듯이,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 중 가장 많이(36.4%) 사용된 전략은 ST의 ‘*be* + 서술 형용사’를 TT에서 동작 동사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22.7%) 사용된 전략은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행동하다, 굴다, 대하다’)를 첨가하는 것이다. 두 전략 모두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1.7절에서 살펴본 비유표현(‘마치, 처럼’) 첨가 전략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작 동사로 대체하는 전략이므로, 총 22개의 잘 된 번역에서 68.2%에 해당하는 번역이 동사를 사용하였다. 반대로 명사를 사용한 전략(즉,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짓’ 첨가)은 총 22개의 잘 된 번역 중 13.6%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영어의 명사중심적 특성과 대비되는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특성(이영옥 2004: 150-151)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번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 대안적 번역

본 절에서 살펴볼 번역 사례는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의 개입이 들어간 대안적 번역이다. 환언하면, 본 논문의 2장에서 고찰한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구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린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들이다. 코퍼스 분석 결과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대안적 번역은 구체적으로 <표 4>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4.2.1절~4.2.5절에서 다루어 보겠다.

<표 4>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대안적 번역

분류	예시	토컨	비율
'-는 거군' 첨부	4.2.1절	1	7.1%
단순 시제로 번역	4.2.2절	6	42.9%
TT에 강조표현('너무, 너무나, 지나친, 이렇게') 첨가	4.2.3절	5	35.7%
부사로 품사 전환 번역	4.2.4절	1	7.1%
기타	4.2.5절	1	7.1%
합계		14	99.9%

4.2.1. '-는 거군' 첨부

첫 번째 대안적 번역으로 다음 (32)를 살펴보자.

(32) ST: "Oh, I see," said Phineas Nigellus, still stroking his beard, "this is no cowardly flight—you are being noble."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495)

TT: "알겠어. 이걸 겁을 먹고 꿇무니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넌 교상하다는 거군."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III, p. 268)

(32)서 ‘you are being noble’은 ‘넌 고상하다는 거군’으로 번역되었다. 즉, ‘-는 것이다’와 감탄형 종결어미 ‘-군’이 결합한 형태인 ‘-는 거군’을 사용함으로써 ‘주장하다’라는 의미의 화법으로 표현된 동사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넌 고상하다는 거군’과 ‘넌 고상해(you are noble)’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므로 번역가가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이 이에 대응하는 단순 시제(simple tense) 구문(즉 비진행형non-progressive 구문)과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단순 시제로 번역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대안적 번역 중 가장 빈번하게(42.9%) 나타난 것은 이 구문을 단순 현재 시제(simple present tense) 또는 단순 과거 시제(simple past tense)로 번역한 것이다. 총 여섯 개의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동일 번역가가 번역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⁸⁾

(33) ST: “You’re being rather rude, you know,” said Luna serenely.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735)

TT: “우리에게 좀 무례한 거 아니니?” 루나가 태평스럽게 말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V, p. 64)

(33)의 경우 4.1.5절에서 살펴본 번역전략대로 ‘우리에게 좀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니니?’로 번역하던지 아니면 4.1.3절에서 살펴본 전략대로 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지금’을 TT에 첨가하여 ‘지금 우리에게 좀 무례한 거 아니니?’라고 번역하면 이 구문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33)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 (33) 바로 다음에 (34)가 나온다.

(34) ST: Harry swore and turned away. The very last thing he wanted

now was a conversation with Luna Lovegood.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735)

8) (33)은 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예이다.

TT: 해리는 욕을 하며 획 돌아섰다. 지금은 루나 러브굿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V, p. 64)

즉, '지금은'이라는 표현이 (34)에 등장하므로 가독성의 측면에서 볼 때 (33)의 TT에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35) ST: Harry thought Ogden was being extremely dim; the stranger was making himself very clear in Harry's opinion, particularly as he was brandishing a wand in one hand and a short and rather bloody knife in the other.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p. 202)

TT: 해리는 오그든이 굉장히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해리는 그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남자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가 묻은 단검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제6권 II, p. 59)

(35)의 경우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그든이 굉장히 말귀가 어두운 척한다고'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35)에 제시된 번역문의 흐름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4.2.3. TT에 강조표현 첨가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대안적 번역 중 두 번째로 많이(35.7%) 발견된 것은 TT에 '너무', '너무나', '지나친', '이렇게'라는 강조표현을 첨가한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36) ST: "You belong at Hogwarts and Sirius knows it. Personally, I think he's being selfish."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p. 158)

TT: “넌 원래 호그와트 학생이고, 시리우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솔직히 나는 시리우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제5권 I, p. 266)

(37) ST: “You’re being modest, Ron,” said Hermione. “Dumbledore was very fond of you.”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 124)

TT: “그건 지나친 겸손이야, 론. 덩블도어 교수님은 너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셨어.” 헤르미온느가 얼른 나섰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제7권 I, p. 204)

4.1절에서 고찰한 번역전략대로 번역을 하면 (36)의 경우 ‘솔직히 나는 시리우스가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아’로 번역되고 (37)은 ‘넌 겸손한 척하는 거야’로 번역된다. 그런데 어감상 (36)과 (37)에 제시된 TT의 번역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TT에 강조표현을 첨가하는 것이 대안적 번역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4.2.4. 부사로 품사 전환 번역

(38)은 *incautious*를 TT에서 ‘부주의하게’라는 부사로 품사를 전환하여 번역한 사례이다.

(38) ST: You are being incautious, wandering around at night, getting yourself caught,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p. 324)

TT: 넌 부주의하게 밤에 돌아다니다가 붙잡혔어!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제6권 II, p. 252)

(38)에 제시된 번역보다는 4.1.3절에서 살펴본 번역전략에 따라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를 TT에 첨가하여 ‘넌 밤에 돌아다니다가 붙잡힐 정도로 지금 조심성이 없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4.2.5. 기타

마지막으로 (39)를 살펴보자.

(39) ST: "It's dreadful that he's dead! But we're being realistic!"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 94)

TT: "그가 죽은 건 정말 슬픈 일이지. 하지만 우린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제7권 I, p. 156)

(39)에서 *realistic*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인' 또는 '현실을 직시하는'이지만, 문맥상 '현실을 직시하는'이 맞다. 따라서 (39)도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를 TT에 첨가하여 '하지만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해!'라고 번역해야 ST의 의미를 충실히 살릴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해리포터 소설 7권을 분석 코퍼스로 삼았다.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은 *You're being rude*와 같은 문장을 번역과정에서 접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과연 좋은 번역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물음은 한국어의 경우 '무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규범상 옳바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의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주요 특징으로는 행위자성, 일시성, 고의성 등이 있으며, 이 구문에 쓰이는 본동사 *be*는 상태 동사가 아니라 동작 동사이다. 둘째, 코퍼스 분석 결과 총 36개의 예문 중 22개(61.1%)는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린 번역이고, 나머지 14개(38.9%)는 번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 대안적 번역이다. 셋째, 22개의 잘 된 번역을 분류한 결과 'be being +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 중 가장 많이(36.4%) 사용된 전략은 ST의 'be + 서술 형용사'를 TT에서 동작 동사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22.7%) 사

용된 전략은 TT에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행동하다, 굶다, 대하다’)를 첨가하는 것이다. 두 전략 모두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4개의 대안적 번역을 분석한 결과 TT에 ‘너무’, ‘너무나’, ‘지나친’, ‘이렇게’라는 강조표현을 첨가한 경우(35.7%)와 ‘-는 거군’이라는 화법 표현을 사용한 경우(7.1%)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본고에서 사용한 영한 병렬 코퍼스에서 발견된 예문이 36개로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영한 번역 교육/실습 및 영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번역전략 연구에 있어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면 번역오류를 줄이면서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번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번역전략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은주·진실로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2(1): 7-34.
- 김도훈 (2011) 「영어 문장부호 일립시스(Ellipsis)와 한국어 문장부호 줄임표의 비교 및 일립시스의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 21』 24(1): 113-134.
- 서정수 (1996) 『현대국어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영옥 (2004)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145-166.
- 조의연 (2012) 「사람명사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소고」, 『번역학연구』 13(1): 267-281.
- 진실로 (2010) 「영한 번역에서의 신체언어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1): 213-243.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2nd edn., London: Routledge.
-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Comrie, Bernard (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P.
- Cowan, Ron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P.
- Davies, Eirlys E. (2003) ‘A Goblin or a Dirty Nose?: The Treatment of Culture-Specific References in Translations of the Harry Potter Books’, *The Translator* 9(1): 65-100.
- Eastwood, John (2006) *Oxford Practice Grammar: Intermediate*, Oxford: Oxford UP.
- Huddleston, Rodney (2002) ‘The Verb’, In Rodney Huddleston and Geoffrey K. Pullum (eds.),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71-212, Cambridge: Cambridge UP.
- Jentsch, Nancy K. (2002) ‘Harry Potter and the Tower of Babel: Translating the Magic’, In Lana A. Whited (ed.), *The Ivory Tower and Harry Potter: Perspectives on a Literary Phenomenon*, 285-301, Columbia: U. of Missouri P.
- Lee, Seung-Ah (2004) *Progressives and Aspectual 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 of Cambridge.
- Lee, Youngjoo (2010) ‘Passive Aspect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3): 797-815.
- Leech, Geoffrey N. (1987)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2nd edn., London: Longman.
- Partee, Barbara H. (1977) ‘John is easy to please’, In Antonio Zampolli (ed.) *Linguistic Structures Processing*, 281-312,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Scheffer, Johannes (1975) *The Progressive in English*,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Valero Garcés, Carmen (2003) ‘Translating the Imaginary World in the Harry Potter Series or How Muggles, Quaffles, Snitches, and Nickles Travel to

Other Cultures', *Quaderns. Revista de traducció* 9: 121-134.

Vendler, Zeno (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 143-160. Revised in Zeno Vendler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97-121, Ithca, NY: Cornell UP.

Wood, Carolyn (2009) "'Feminine" Speech in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Harry Potter', *Griffith Working Papers in Pragmatic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1): 44-50.

<분석 코퍼스>

ST: Rowling, Joanne K. (1999)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김혜원 옮김 (1999)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1999)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김혜원 옮김 (2000)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1999)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김혜원 옮김 (2000)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2000)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김혜원 · 최인자 옮김 (2000) 『해리포터와 불의 잔』,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2003)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최인자 옮김 (2003)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2005)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최인자 옮김 (2005)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서울: 문학수첩.

ST: Rowling, Joanne K. (2007)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New York: Arthur A. Levine Books.

TT: 최인자 옮김 (2007)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과주: 문학수첩.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al Strategies of
'Be Being + Predicative Adjective' Constructions:
An Analysis of an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Lee, Seung-Ah
(Ewha Womans University)

In both English and Korean, state predicates such as *be tall* and *khuta* 'be tall' generally disallow the progressive aspect. However, in English, but not in Korean, certain cases arise where the *be* plus predicative adjective combination can occur in progressive constructions. Specifically, whenever the progressive is used with the *be* plus predicative adjective or noun combination, the goings-on indicated by these types of expressions are always interpreted agentively. That is, the verb *be* may be used as a dynamic verb when there is a sense in which it is interpreted agentively. For example, *He is being stupid* may be paraphrased as 'He is acting in a stupid manner.'

The present study examines English-Korean translational strategies of '*be being* + predicative adjective' constructions, as this is an area where a grammatical mismatch exists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To this end, a parallel corpu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Harry Potter* series, which consists of seven fantasy novels. Among the 36 translated sentences analyzed and classified, 22 (61.1%) were regarded as preserving the meaning of the source texts (STs), whereas the remaining 14 (38.9%) were considered to be cases where interventions were made by the translator. Of the 22 meaning-preserving translations, the most prevalent translation strategy turned out to be the substitution of a dynamic verb for the *be* plus predicative adjective combination (36.4%). Other strategies included the addition of a verb

with the meaning 'to act' in the target texts (TTs, 22.7%), the addition of a noun with the meaning 'action' in the TTs (13.6%), the addition of a time adverbial implying temporary behavior in the TTs (4.5%), and so on. The use of a parallel corpus in the study of translational strategies provides a means of resolving systematic mismatches between languages that present particular difficulties for meaning-preserving translations. It also sheds additional light on the problems translators may face during the actual translation process.

▶ Key Words: agentivity, dynamic verb,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grammatical equivalence, *Harry Potter*, progressive aspect, state verb, translational strategy

이승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seungahlee@ewha.ac.kr

관심분야: 코퍼스기반 번역학,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

논문투고일: 2012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